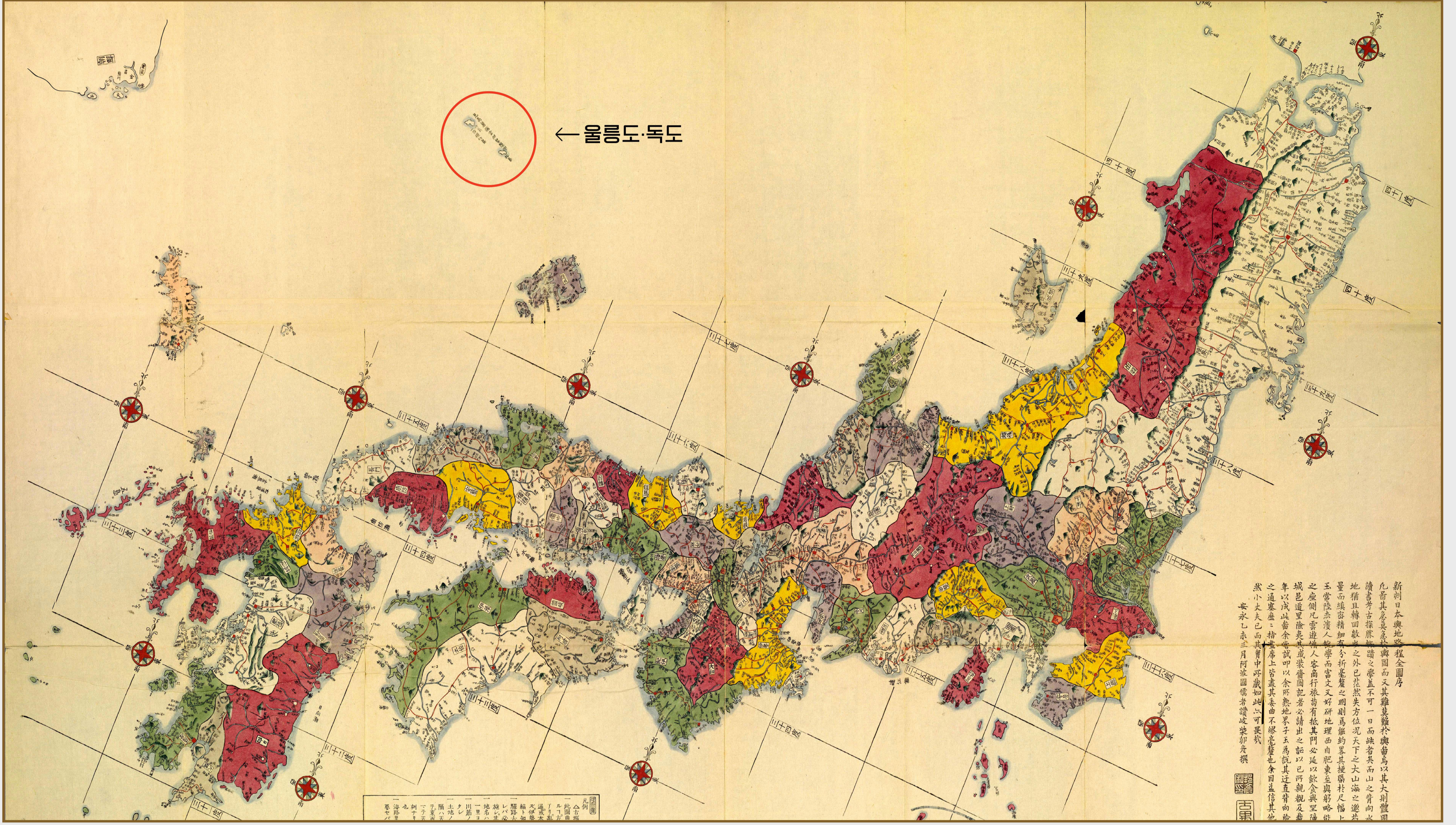


지도 위에 펼쳐진 진실

고지도 속 우리의 독도를 찾아서

독도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 중 지도는 독도영유권 논거를 시각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늘 주목받았다. 그동안 독도재단은 국내 독도 관련 유관기관에 분산·소장되어 있는 독도관련 고지도를 정리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을 지난해부터 이어왔다. 각고의 노력으로 이번에 구축된 고지도 DB가 향후 동·서양 독도관련 고지도를 수집·분석·연구·홍보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길 바라며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한다.

글 김수란 사진제공 독도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79)

고지도 DB 구축의 필요성

최근 들어 일본의 독도 도발 행위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도쿄 영토주권전시관 확장, 왜곡된 역사 내용을 포함한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개정,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발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기념식에 중앙정부 인사 참석 등 그 행위를 미처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일본은 러일전쟁 때 독도를 몰래 불법적으로 편입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지속된 일본의 독도 도발은 오히려 한국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 홍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우리 언론에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독도에 대한 이슈를 알고 있다. 일본이 도발을 감행해 올 때마다 우리가 내어놓는 가장 분명한 반박 증거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현한 동·서양의 다양한 고지도였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다양한 출처의 고지도는 일반인에게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가장 큰 설득력을 지닌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내 독도 관련 유관기관들은 그동안 독도 영유권 증명에 유리한 고지도를 동·서양을 망라해 수집해 왔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지도 수집이 진행됨에 따라 자료가 중복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독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독도관련 고지도를 꾸준히 수집해 왔지만, 분산 소장되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독도재단은 독도관련 자료를 수집 중인 국내 유관기관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독도 고지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통합적인 DB 구축에 나서게 된 것이다.

동·서양의 관심대상 동해의 독도

과거 사람들의 영토 인식이 반영된 고지도는 비록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을지언정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국가 간의 영유권 문제에서 개인의 견해가 아닌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긴 공문서, 지리서, 지도 등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법적 힘을 갖는 결정적 자료가 된다. 이에 따라 독도재단은 국내에서 고지도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유관기관 10곳을 선정, 16세기부터 1910년 사이 제작된 동·서양의 지도 중 독도가 표기된 원본 고지도를 중심으로 독도 관련 고지도를 조사·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각 기관이 소장한 고지도 약 1,000여 점 가운데 기관별 중복 고지도를 제외하면 독도 관련 고지도는 총 399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독도재단 71점, 동북아역사재단 71점,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51점, 국회도서관 47점, 국립해양박물관 37점, 독도박물관 35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1점, 영남대박물관 26점, 국립중앙도서관 22점, 서울대도서관 8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행 국가별로는 일본의 고지도가 197점(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서양의 고지도가 110점(27.6%), 한국의 고지도가 92점(23.0%) 순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해의 작은 섬 독도가 예로부터 동·서양인들에게 높은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 제작된 조선왕국도(1735)

독도재단의 의미 있는 발간

독도재단은 이 결과를 가지고 최근 '지도 위에 펼쳐진 진실-독도'라는 제목의 도록집을 발간했다. 독도가 대한제국영토임을 전 세계에 천명했던 121년 전 1900년 10월 25일을 기억하며 동·서양에서 제작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고지도들을 한데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도록집은 독도 관련 고지도 DB구축을 위해 조사가 이뤄졌던 기관 10곳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중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고지도를 201점 선정하여 제작됐다. 특히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조선왕국도'도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 밥티스 부르기농 당벨'이 1735년 제작한 것으로 '중국통사'제4권에 수록된 조선전도이다. 이 지도는 유럽인에 의한 최초의 조선전도로서 당시 한국을 가장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평해 동쪽 바다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두 개의 작은 섬으로 그려져 있는데, 중국어 발음으로 울릉도는 Fan-ling-Tao로, 독도는 Tchiang-chan-tao로 표기돼 있다. 동도가 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것은 당시 독도를 칭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록집에는 이 밖에도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한 조선지도, 일본지도 등과 일본의 지도학자 '나카쿠보 세이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관허판(1779, 1791, 1811, 1833, 1840) 5점도 모두 수록되어 있다.